

법치주의 위기 경고한 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

# “로스쿨서 판례 암기만 강요...법이 상대와 다투는 수단 돼”

황건강 기자  
syhwang.kunkang@joongang.co.kr

“기초법학 교육이 무너지고 로스쿨 수업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위기에 처해 왔고요.”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중앙SUNDAY와 만난 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유능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로스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법의 존재 목적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는 곳으로 바뀐 현실을 비판하면서다.

그는 “지금의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제도는 법의 근본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오로지 법 조항과 판례의 암기만 강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은 상대방과 다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 신임 회장은 지난달 22일 제17대 한국법학교수회장에 선출됐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 및 법학 인접 전공을 강의하는 교수 등 1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대한민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꼽힌다. 민사법 전문가인 최 신임 회장은 한국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를 만나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사소한 분쟁도 소송, 작년 667만 건 접수  
-기초법학 교육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민법·형법 등 변호사 시험의 핵심 과목이 아닌 기초법학 교육은 사실상 고사 상태다. 학생들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은 민사법 70%, 형사법 20%, 나머지 10% 정도라고 한다. 나머지 10%엔 헌법 등 공법도 포함되니 기초법학 과목의 존재감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기초법학 과목인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강의는 개설해도 최소 수강 인원을 채우지 못해 폐강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에서도 로스쿨 때문에 대학원 최소 수강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기초법학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이 한 학기에 5명도 없다는 얘기가.”

-다른 로스쿨은 어떤가.

“기초법학 과목 외면 현상은 전국의 모든 로스쿨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로스쿨 교수 788명 중 기초법학 전공 교수는 30명에 불과하다. 기초법학 담당 교수가 한 명도 없는 로스쿨도 5곳이나 된다. 서울대 외에는 기초법학 전공 교수를 신규 임용하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 30명 남짓 교수들이 은퇴하면 기초법학은 학문의 맥이 끊길 처지다.”

-변호사 시험 선택 과목은 어떤가.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가장 많이 고르는 게 국제거래법이다. 그런 국제거래법 강의도 실제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드물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선택 과목은 비교적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선 3일 특강만 들어도 된다고 하더라. 다른 선택 과목에도 ‘2주 과목’ 혹은 ‘3주 과목’이란 별칭이 붙는다. 심지어 학생이 교수를 찾아와 5명 모아올 테니 4주만 강의하고 나머지는 자습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벌어진다.”

-학생들에게 여유가 없는 탓인가.

“로스쿨 학생들은 늘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가량이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떨어져야만 하는 시험인 셈이다. 변호사 시험에 다섯 번 낙방한 이른바 ‘오탈파’가 되면 영원히 변호사가 될



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지난 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로스쿨 시대 법학의 위기와 관련해 중앙SUNDAY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 전국 로스쿨서 기초법학 외면 현상 학생들 민·형법 등 핵심 과목만 공부

## 변호사 시험, 객관식이 당락 좌우 출제위원 이의신청 우려도 한몫

## 시대에 맞는 법률적 판단 내리려면 법철학 등 다양한 과목 공부해둬야

에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성적을 확인하며 로스쿨이 어떤 곳인지 실감했다”며 “시험의 달인들이 모인 곳이니 누구도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양한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쟁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에선 주요 과목의 판례 암기 능력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암기 능력은 중요했다. 다만 그랜 2차 주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당락을 갈랐다. 반면 현행 변호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당락을 좌우하니 판례 암기 중요성만 더욱 커지게 됐다.”

-판례 암기가 핵심이 된 이유는.

“이른바 ‘문제없는 문제’ 때문이다. 법은 산수가 아니다. 이의신청의 여지도 많다. 출제위원들은 이의신청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문제 말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다’고 명시한다. 판례대로 정답을 찾아야 하니 응시자 입장에선 1만2000개 판례 암기가 필수다.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로스쿨에서 판례 암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학생들만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판례 암기가 아닌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우리 사회엔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는 논리는

수 없다. 게다가 변호사가 되더라도 법원이나 검찰, 대형 로펌 등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선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와 대외 활동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극단적으로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과중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서울대 서암법학관 인근에서 만난 로스쿨 학생 김모(29)씨는 “첫 학기를 마치고 학부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지난 5월 건국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제공〉

많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만 봐도 다양한 게 의견이 갈린다. 다수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으며 양쪽이 포함되지 않는 별개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약을 피하는 게 법의 역할이다. 그러나 법철학과 법사회학 등 다양한 기초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적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 기초법학의 붕괴와 법치주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비단 최 교수만의 우려가 아니다. 전국의 법학 교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기에 처한 법학 교육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지난 5월엔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법학 교수들은 “변호사 시험에 집중된 지금의 로스쿨 교육으로 인해 법조인이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75% 수준 높여야”

-법치주의 위기라고 판단한 이유는.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이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후 16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엔 법이 최선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형식적·절차적 요건만 따지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법을 활용하는 모습이 빈번해지고 있다. 법을 수단화해서 다투는 일만 늘어날 셈이다.”

그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사소한 분쟁에도 소송을 벌이는 사회가 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50만130건) 늘었다. 이중 68%가 민사소송이다. 법조계 내에서 “로스쿨에서 민법 공부만 해도 변호사가 돼 밥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학생들도 민법에 집중하는 것”이란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결책은 없나.

“단기적으로는 선택 과목 졸업 학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과목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조정도 시급하다. 현재 50%대인 합격률을 7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매년 5%씩 합격률을 높이면 2030년쯤엔 75%까지 높일 수 있다. 이후 매년 안정적으로 17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법학 교육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기존에도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었는대.

“법학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표현을 두고 조홍식 법학교수회장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접수되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표현 하나하나에 집착할 게 아니라 후배 법조인 양성과 법치주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는 게 건설적인 방향일 거다. 지금이라도 법학 교육 ?정상화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나.”

“로스쿨이 없던 1990년대에도 사법시험이 ‘법조문을 외우는 기계’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사법시험이란 단어를 로스쿨로 바꾸면 놀랄 만큼 동일한 지적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게 로스쿨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부 정부 부처에선 변호사 대신 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자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는 로스쿨이 주요 과목 판례 암기에 매몰된 채 변호사 시험 준비 기간이 돼버렸다는 방증이 아니겠나.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때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